

# 무주반딧불축제 주인공은 나야 나

### 재능자랑·산골군민노래자랑·반디라디오 사랑방 등 공연 기대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에 따르면 9월 2일을 시작으로 3일에도 무주재능자랑이 주 무대에 올라 지며 4일에는 산골군민노래자랑이, 5일에는 주계음우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재능자랑과 산골군민노래자랑은 군민들의 재능기부로 축제의 재미는 키우고 동참은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일 개최된 무주재능자랑에서는 무주종합복지관 아코디언, 커피댄스 등 9개 팀과 흡스쿨링 지역아동센터 난타 등 청소년수련관 7개 팀이 흥과 끼를 뽐냈다.

3일(16:30~21:00)에는 칠연골 풍물단 등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17개 팀과 뽕리댄스 등 무주문화원 2개 팀이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주인공 등극을 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서는 무대라고 생각하니 반딧불축제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며 "무대에 서는 우리도, 우리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모두가 즐거운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되는 산골군민노래자랑에서는 무주읍과 무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호응을 얻고 있다.

풍, 설천, 안성, 적상, 부남면 대표 주민들의 노래경연과 무주군 출신 가수 초청 공연을 볼 수 있다.

5일 열리는 주계음우회 공연은 '젊은 트롯 가수'와 함께 하는 무주의 밤 공연으로 주계악단 연주와 함께 '내 고향 무주'부터 '무주구천동', '안성 아가씨' 등 무주를 소재로 한 노래가 축제장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반디라디오 사랑방(이하 반디라디오)도 인기다. 무주군 관내 초·중·

고등학생들이 DJ로 활약하고 있는 반디라디오에서는 방문객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하며 축제장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 확성기를 통해 축제장 전역에 반딧불축제 프로그램과 무주의 이야기들을 전하며 축제관람과 무주여행을 돕고 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진행돼 호응을 얻었던 반디라디오는 6일과 7일, 8일에도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공개

### 지난해 살림규모 5,236억원

진안군은 2018년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살림규모는 5,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59억원이며,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3,64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37억원이다.

특히 진안군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499억원 보다 737억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수입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보다 적으나, 이전재원 및 공유재산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안군 채무액은 없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10억원과 비교할 때 진안군 재정이 건전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안군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부족한 살림규모에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재정공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주천면민의회장 수상자 선정

### 문화체육장 김봉주·공익장 김영기씨 등 5명

진안군 주천면(면장 황양)은 최근 주천면민의 날 기념 민민의 장 수상

민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4회 주천면민의 날 기념 민민의 장 수상자로 문화체육장에 김봉주(84), 공

장에 김영기(65), 산업근로장에 김명갑(67), 애향장에 박창식(61), 효열장에 김정희(54)씨 5명을 선정했다.

시상은 오는 7일 주천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64회 주천면민의 날 화합한 마당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장수깃절놀이 공연이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장수군 종합경기장에서 시연 된다.

## 지역 전통놀이 꽃 피우다

### 장수깃절놀이 공연 7일 종합경기장에서 시연

장수깃절놀이 공연이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장수군 종합경기장에서 시연 된다. 장수문화원(권승근 원장)에서 예로부터 전해 오던 장수깃절놀이를 2009년부터 2011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수양성 교육을 통해 기수 양성, 읍면지역 풍물단체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첫 공연을 시작함으로써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7년째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장수깃절놀이는 지난 2013년부터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수양성 교육을 통해 기수 양성, 읍면지역 풍물단체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첫 공연을 시작함으로써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계북초등학교(5학년 김정구), 백화여고 학생들(김소연,김수연,박문숙,최유리)이 열두발 상모교육에 참여, 지역주민들과 열두발 상모놀이 공연을 할 예정이다.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으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관심을 갖고 계셨던 백화여고 정병선 선생님의 권유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기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수단은 깃절놀이 송상석 단장을 선두로 송제원,안용근,이재선,박병일,박태규 기수(산서), 박현희 기수(장계), 황수용 기수(계북)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기수단이다. 기수단이 사용하는 깃대는 높이가 6~7m의 대나무로 푸른용이 그려진 천과 깃대 꼭대기에는 방울이 달린 평장목을 달아 기수공연을 하는데 거의 높이와 모습이 웅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1차 발굴보고회

장수군은 2일 장영수 군수 주재로 본청 및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1차 발굴 보고회를 갖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발굴된 신규 사업 총 84건, 국도비 3038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국립 청소년 산악 체험센터 건립 등 국책사업 2건, 동부산악권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장수말 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국고사업 59건, 장수 長壽길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등

도비사업 10건, 기타 국특사업 12건 등 크게 4개 재원별 사업에 대한 보고 진행됐다.

장영수 군수는 "정부정책 및 민선 7기 공약과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선점하고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국비확보를 위한 전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신규 발굴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축제와 만나장' 성료

진안군 마을축제인 '축제와 만나장'이 어울림과 힘의 문화예술장터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제12회 진안군 마을축제의 일환으로 문화공연과 장터를 접목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진행돼 색다른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군민들이 셀러(판매자)로 참여한 먹거리, 생활공예, 농산물, 벼룩시장 등 총 25개의 부스는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목표 판매를 달성했다.

아이들을 위해 기획된 '나도 DJ 체험', '나만의 프로필 사진 찍기', '책 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뮤즈그레인, 크리스탈 싱임볼과 디제리두 연주, 라브 바스크 연주 등 소소한 악기를 이용한 공연들은 축제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른날인 31일에는 미술공연으로 막을 열고 파워레인저(안전고)팀의 네일아트와 DIY 거울 만들기, 장승초 아이들의 매달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백운면 대유마을 박미자씨는 "군청이 시골벽적인 문화장터로 탈바꿈하니 왠지 더 친근해졌다"며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소년소녀 가정 무료래프팅 체험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무주군래프팅협회 주관으로 소년소녀가정을 돕기 위한 래프팅 무료체험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무주군래프팅협회 김태훈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했다"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화합과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마냥 즐거운 시간이 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청소년들은 90명으로 부남면 황새연에서 무주래프팅까지 1시간 30분 동안 래프팅을 즐겼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에서는 참가자들과 수상안전수칙 준수와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